

류원무 소설에 나타난 농촌 개혁의 주체

최 병 우*

요약

류원무는 연변작가협회 전직작가로 활동하던 1980년대에 그의 대표작 대부분 창작했다. 이 시기 류원무는 개혁개방 시기 농촌의 현실과 농촌 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관한 사색을 지속하여 농촌 개혁을 추진해 나아갈 주체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소설적으로 보여주었다.

등단 초기 류원무는 당의 정책을 농촌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농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헌신하는 기층간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농촌 개혁의 주체에 대한 고민을 지속한 류원무는 기층간부, 개인의 이상, 성공을 위한 열정 등 세 가지로 종합한 새로운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농촌 개혁을 위해서는 농촌의 생산성을 신장시킬 전문호를 관리하여 기업 영농으로 또 향진 기업으로 성장시켜 그를 중심으로 농촌이 공존 번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층간부의 정확한 정책 판단과 정책을 수행할 전문적 능력과 이상을 가진 농민의 상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농촌 개혁이 개인영농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 영농과 향진 기업 등으로 발전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현실인식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의 방향과 부합한다. 올바른 정책을 가진 기층간부가 이상과 능력을 겸비한 농민과 헌신적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농촌 개혁이 가능하다는 류원무 소설이 보여준 현실인식은 조선족 소설이 1980년대에 도달한 하나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개혁개방, 현실인식, 농촌개혁의 주체, 기층간부, 전문호, 기업 영농, 향진 기업

목차

1. 서론
2.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층간부의 형상
3. 문혁의 혼란과 이상 실현을 위한 열정
4. 엄혹한 현실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분투
5. 농촌 개혁 과정에서 전문호 탄생의 의의
6. 결론

1. 서론

류원무는 1935년 1월 22일 함경남도 신흥군 동고촌면 인흥리에서 가난한 농민 류문언과 신한순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1941년 2월 부모를 따라 흑룡강성 녕안현 진가툼으로 이주를 하였다. 그곳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녕안중학교를 거쳐 1954년에는 하얼빈외국어학원에 입학하였다가 연변대학 역사학부로 전학하여 잠깐 수학하다 조문학부로 학적을 옮겼다. 문학의 길을 꿈꾸던 그는 1956년 3월 연변대학을 중퇴하고 연변대학 비서과에서 근무하였고, 그해 6월에 연변인민출판사로 전근되어 번역실에서 번역에 종사하며 많은 중문 작품들을 번역하였다. 1969년 10월에는 정치문제조 조장직을 맡았고, 1972년 문예편집실이 독립하면서 조장을 1974년 아동문학편집실이 독립하자 편집실 주임을 지냈다. 1982년 5월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의 전직작가로 전근되어 창작에 몰두하다가 1995년 2월에 연변작가협회를 정년퇴직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연변작가

협회와 중국작가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주정치협상위원회 위원, 동 상무위원, 길림성정치협상위원회 위원 등 소임을 맡기도 하였다.¹⁾

이러한 왕성한 외적 활동과는 달리 류원무는 평생을 가난 속에 살았다. 1952년 부친이 타계하자 모친이 녕안 시로 솔가해 나와 장사를 하여 번 돈으로 어렵게 중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은 하였으나 가정 형편 상 중퇴하였다. 임만호 총장의 도움으로 연변대학 비서과에서 연변인민출판사로 전직한 이후 출판사 편집담당자의 월급만으로 가정을 꾸렸다. 전직작가로 전직한 이후에도 적은 월급과 약간의 원고료로 궁핍하게 생활하던 류원무는 1989년 아내가 사기를 당해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되어 엄청난 시련을 겪는다.²⁾ 빚을 갚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던 그는 1997년 한국에서 약 9개월 간 불법체류³⁾를 하면서 막노동을 하여 빚을 정산한 후, 십년 가까운 기간 다시 창작과 작품 출간에 힘을 쏟았다.⁴⁾ 평소에 건강에 대해 큰 걱정을 앓던 류원무는 2008년 3월 연변작가협회에서 마련한 건강검진에서 폐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였지만 빠른 속도로 간암으로 전이되어 12월 7일 연변병원에서 운명하였다.⁵⁾

- 1) 류원무의 생애는 『류원무 년보』(류원무, 『회한』, 연변인민출판사, 2009)를 바탕으로 하고 장례식에서 우광훈이 낭독한 『고 류원무선생 추도사』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 2) 이 경과와 사회에 대해서는 류원무, 앞의 책, 2부 고해, 113-159면에 잘 그려져 있다.
- 3) 리혜선, 『진지한 인생 진지한 작가』, 고 류원무선생 작품세미나 발표문, 2009.4.28.
- 4) 립원춘, 『인격자-류원무』, 『연변문학』 2009.2, 144면 참조. 이 글에서 립원춘은 류원무가 불법체류는 하지 않고 두 차례 한국행을 하여 글도 쓰고 책도 출판하고 막노동도 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리혜선의 지적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류원무는 한국행에 대해 글을 남긴 바 없다.
- 5) 류원무의 마지막 모습은 립원춘, 앞의 글과 허룡석, 『작가는 갔으나 덕성은 남아- 고 류원무 선생을 추모하며』(『연변문학』 2009.2.)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류원무는 50년에 이르는 문필 생활을 통하여 소설, 실화, 수필, 동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35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하고, 20권에 이르는 작품집을 내놓은 다산작가이다.⁶⁾ 그는 연변인민출판사에 재직하며 번역 사업에 종사하면서 1957년 6월 동요 「다음에 놀자」를 『소년아동』에 발표하는 등 아동문학 창작에도 관심을 두었다. 이후 많은 번역물을 출판하면서도 아동문학 창작을 계속한 그는 1980년 2월 소년장편소설 「장백의 소년」과 탐정소설 「숲속의 우등불」을 연변인민출판사에서 간행하였다.⁷⁾ 이어 1981년 4월 「현위대장과 그의 부인」을 『연변문예』에 발표하여 창작의 역력을 소설로 확장한 류원무는 「비단이불」(『연변문예』 1982.7.)로 소설가로서의 명성을 확보한 후, 100편에 가까운 중단편소설과 「다시 찾은 고향」, 『봄물」, 『아리랑 열두 고개』 등 여러 편의 장편소설을 발표하고 십여 차례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조선족 소설계의 중요한 작가로 자리 잡았다.

류원무의 창작 활동과 그 성과에 비하여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소수하여 조선족 평자들이 발표한 몇 편의 비평문과 1970년대 한국 농촌소설과 조선족 농촌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성격을 비교하면서 류원무를 연구 대상 중 하나로 삼은 한명환⁸⁾과 류원무의 대표적인 동화 「우리 선생님」에 나타난 조선족 공동체의 의식을 연구한 차희정⁹⁾ 등의 소논문과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봄물』의 문체를 분석한 최호남의 석사학위논문¹⁰⁾이 있을 뿐이다. 이중 한명환

6) 립원춘, 앞의 글, 142면 참조.

7) 류원무는 「장백의 소년」으로 1981년 제1차전국소수민족문학창작상과 동북3성 조문관우수도서 2등상 등을 수상하여 문인으로서 입지를 굳힌다.

8) 한명환, 「한민족 농촌소설 탈식민주의적 위상 고찰 - 70년대 한국 농촌소설과 개혁개방기 중국 조선족 농촌소설을 중심으로-」, 『한중민문학연구』 21집, 2007.

9) 차희정, 「개혁개방기 중국 조선족 아동문학에 나타난 조선족 공동체 의식과 탐구 - 류원무의 「우리선생님」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52집, 2010.

10) 최호남, 「류원무의 장편소설 『봄물』에 대한 문체론적 연구」, 연변대 석사논문.

의 논문은 작가작품론이 아니고 차희정의 논문은 소설 연구가 아니며, 최호남의 논문은 소설의 문학적 의미에는 무관심한 한계를 지닌다. 본고는 그간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던 류원무의 소설 전체를 검토하여 그가 초기에 발표한 단편소설부터 그가 출간한 세 권의 장편소설에 일관되게 드러나는 ‘농촌 개혁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주제가 어떠한 변화를 드러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2.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층간부의 형상

연변인민출판사 편집부에 재직하면서 번역 작업을 하는 틈틈이 아동문학 작품을 창작하던 류원무는 두 권의 아동문학 작품을 출간하여 아동문학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난 뒤, 단편소설 『현위서기와 그의 부인』을 발표하여 소설가로서의 길로 나아간다. 『현위서기와 그의 부인』은 류원무가 발표한 첫 소설¹¹⁾이면서 주인공인 리형옥 현위서기가 그의 초기 소설이 지향하는 인민을 위해 또 혁명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기층간부¹²⁾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작품은 인민에 헌신하는 기층간부 리서기와 세속적인 리서기

2015.

11) 류원무는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에 매료되어 시인을 꿈꾸었으나 재질이 없다고 느껴 포기하고 소설로 방향을 바꾸어 두어 편의 장편소설을 시도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했고, 40대 중반인 1980년에 장편동화 두 권을 상재한다. 1981년 중국작가협회 문학강습소(현 노신문학원)에서 1년간 창작 연수의 기회를 갖게 되고, 이 시기에 소설가로 등단하게 된다. 류원무, 『회한』, 『회한』, 연변인민출판사, 2009, 77-88면 참조.

12) 기층간부란 농촌에서 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농민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잦은 향과 진에 근무하는 간부와 현장, 현위서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의 부인을 대비하여 주제를 강렬하게 드러낸다. 리서기의 부인인 현민정국 부국장 김정숙은 남편이 현위서기인 것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인물로 장석환 주임의 도움을 받아 불법적으로 큰아들 군대에 보내고 작은아들 대학에 추천을 받기도 한다. 생일상을 못 차리게 하는 남편 몰래 딸과 남편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던 부인은 장주임의 부인에게서 현위 간부 후보자 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크게 놀란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인민의 행복만을 위해 헌신하던 리서기는 문혁 때 얻은 부상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간부 선거에서 현위서기 직을 반납하고 고문으로 몰려선다. 뒤늦게 남편이 현위서기 직을 반납한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현훈증을 일으킬 정도로 실망하자 리서기는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 현위서기 직을 반납한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리서기는 쏘파에서 일어나 부인 앞에 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간곡하게 말하였다.

“이보, 그렇지 않소? 농촌으로 훌훌 나다니지 못하는 몸으로 내가 어떻게 계속 현위서기 사업을 하겠소.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지지만 내린다면 관료주의를 면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현의 사회주의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지 않겠소? 그래서 고문으로 있겠다구 했소. 현위서기를 담임하는 것 두 혁명을 위해서구 그만 두는 것두 혁명이 아니겠소? 여보 나는 당신도 내 본을 받았으면 하오.”¹³⁾

리서기는 젊어서부터 포부가 크고 박력이 넘쳐 사무실을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이 마을 저 마을 현장을 찾아다니며 농민들을 위해 헌신하여 구위 부서기, 농촌 공작부 부장,

13) 류원무, 『현위서기와 그의 부인』, 『류원무 단편소설 자선집』, 연변인민출판사, 2008, 264면. 이하 본문의 인용은 원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독성을 위해 띄어쓰기는 한국의 맞춤법 규정에 따른다.

현위부서기, 현위서기 등으로 고속으로 승진한 열성적인 당 간부이다. 문혁 때 주자파, 반혁명으로 몰려서도 장주임 같은 무리들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고 비판을 받다가 다친 허리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현위서기 직을 담임한다. 그러나 현위서기인 자신이 농촌 현장을 돌아다니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명령만을 내린다면 지방 간부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현위 간부 입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문혁 때 이간도발 하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장주임을 현위위원 후보자에서 빼고, 업무를 제대로 담당할 수 없는 자신도 현위서기 후보를 포기하여 회의에 참석한 모든 간부들이 감동하게 만든다.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층간부의 헌신이 필요하다. 기층간부들이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인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인민의 삶은 더욱 윤택해질 것이고 단기간 안에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현위서기와 그의 부인」에서 보여주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기층 간부의 형상은 류원무의 초기 소설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한다. 산비탈에 자리 잡은 마을 청수동의 다섯 개 생산대 중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고 생산력이 낙후되어 있는 문제투성이 5생산대의 생산대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었을 때, 자진해서 생산대장에 지원하여 생산대를 남부럽지 않게 일으켜 세우는 공산당원 병수를 통해 기층간부가 어떠한지 하는지를 그려낸 「공작대장」(『연변문예』 1982.1.)도 류원무 초기소설의 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또 「허도거리와 안도거리」(『연변문예』 1985.2.)에 등장하는 허철성 생산대장은 강냉이죽이나 먹으면서 회억대비를 하며 집체 노동에 내몰리는 생산대원들이 힘을 추스려 일을 할 방책을 마련한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 썸바귀죽을 먹으며 「잊지 마세」 노래를 부르고, 이어서 생산대에서

준비한 술과 돼지 한 마리를 즐겁게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갖게 한다. 자본주의 사회였던 과거의 어려움을 잊지 말자는 회억대비의 자리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풍요와 행복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진정한 회억 대비가 되게 한다는 아이디어로 상급의 비판도 면하고 마을 사람들의 노동력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상황 설정이기는 하지만 진정 인민을 위하는 기층간부라면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다 열심히 노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류원무에게 작가적 명성을 안겨준 『비단이불』은 앞의 소설들과는 조금 다르게 기층간부의 행동을 직접 서술하기보다는 불로송 아바이라는 한 시골 노인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기층간부의 정확한 현실 인식과 헌신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그리고 있다. 신흥평에 사는 불로송 아바이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아들의 무훈금으로 비단이불을 마련하여 농민들을 지도하기 위해 마을에 들르는 기층간부를 위한 초대소를 운영한다. 작중화자 나는 1952년 겨울 현당위 농촌공작부 간사로 신흥평에 가서 새로 생긴 초대소에서 묵을 때 첫손님으로 불로송 아바이를 만난다. 불로송 아바이 부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다리에 부상을 입은 나를 아들처럼 여기고 비단이불을 내어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준다. 현에서 기층간부들이 마을에 올 때마다 비단이불을 꺼내어 그들의 노고를 위로해주던 불로송 아바이는 잘못된 당 정책을 비판 없이 농촌에 내리먹이는 기층간부들의 행동에 엄청난 분노를 보인다. 특히 문혁 기간 중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농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집행하는 기층간부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운다.

“글쎄 논이나 밭은 깊이 가는 건 좋지만 석 자 깊이나 파 얹어 놓는 건 웬 도깨비장난이야? 그래 생땀을 그렇게 파 번져놓

고도 벼가 돼? 소가 빠져서 씨레질은 또 어떻게 하구. 뭐 한 쌍에서 십만 근을 낸다? 세 살 먹은 아이나 곧이들겠는지. 미친 소리야! 그래 임잔 이 추운 겨울에 죽물이나 겨우 얻어먹는 사원들이 밤낮 곡괭이질 하는 게 불쌍하지두 않아요?”¹⁴⁾

“오늘 모를 꺾어봤으니 알겠지? 당초에 개지랄이야! 4월에 모가 뭐야! 그 찬물에 모가 살아나? 대체다, 다락전이다, 흙땅 크다 하는 바람에 몇 년째 죽물두 못 얻어먹는단 말이야. 아들 녀석이 목숨 바친 게 아까와!”¹⁵⁾

위의 인용은 농촌의 현실도 모르는 상급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농업정책을 입안하여 내려 보낼 때, 기층간부가 상급의 명령대로 시행만 한다면 진정한 기층간부가 아니라는 시각을 보여준다. 광활한 중국의 어느 농촌에서 성공한 사례라 하여 밀식나 심경¹⁶⁾을 모든 농촌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농촌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일이다. 밀식을 하면 작물이 방해를 받아 벌지 못하고 병충해가 심해질 수 있고, 심경은 발농사 짓는 곳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논농사 짓는 농촌에서 김매기가 어려워 농사를 망치게 된다. 또, 남방 지역은 연중 이모작을 하는 곳이니 만숙종 재배로 소출을 높일 수 있지만 북방에서는 추위가 끝나는 계절에 모를 내어 추위가 시작되기 전 빨리 수확해야 하기에 중숙종이나 조숙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상급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기층간부에 대해 불로송 아버이는 엄청난 비판을 가하고, 기층간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자신이 운영하던 초대소의 문을 닫아

14) 류원무, 『비단이불』, 『류원무 단편소설 자선집』, 연변인민출판사, 2008, 293면.

15) 『비단이불』, 위의 책, 295면.

16) 밀식과 심경은 생산성 증진을 위해 작물을 촘촘히 심는 것과 논밭을 깊게 가는 것을 뜻함.

버린다. 그러나 문혁이 끝나고 농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자 불로송 아바이는 무휼금 중 두 노친의 장례비로 남겨 두었던 뭇으로 다시 비단이불을 만들어 신흥평을 찾는 기층간부들에게 제공하는 초대소 문을 연다.

이 작품은 기층간부가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인민과 함께 하는 기층간부는 열정과 헌신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실사구시하는 마음으로 상급에서 내려온 정책을 현장에 맞도록 조정하여 시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¹⁷⁾ 이렇듯 류원무의 초기소설들은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민과 함께 농촌을 변혁시키려는 신념을 가지고 헌신하는 기층간부가 말로 안정된 인민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길을 앞당기는 원동력이라는 이 시기 작가의 현실인식을 분명히 보여준다.

3. 문혁의 혼란과 이상 실현을 위한 열정

1980년대 초 몇 편의 단편소설로 소설가로서 위상을 확보한 류원무는 1985년 허해룡과 공저로 장편소설 『다시 찾은 고향』¹⁸⁾을 상재한다. 이 작품은 항일투사인 아버지가 사형당하고 어머니가 감옥에 끌려 갈 때 목숨을 구해준 마을 할아버지 손에 자란 칭산과 감옥

17) 대약진운동 시작부터 문혁이 끝나기까지 20년 동안 엄청난 수의 당 간부들이 당의 정책을 비판하다 우파로 몰려 비판을 받고 숙청되거나 죽음으로 내몰린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류원무의 이 같은 기층간부에 대한 인식은 개혁개방 이후 만들어진 허위의식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비단이불』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에 중국사회에 밀어닥친 정치적 혼란으로 당 간부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프랑크 디뢰터의 '인민 3부작' 중 『마오의 대기근』과 『문화대혁명』에 상세하게 논구되어 있다.

18) 류원무 · 허해룡, 『다시 찾은 고향』,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5. 이하 작품 인용은 '『작품명』, 면수'로 한다.

에서 낳은 순희와 살고 있던 칭산의 어머니 등 세 가족이 해방 후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칭산이 대학 졸업 후 발령 받아간 항일유적지인 고향 마을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 내용의 허해룡의 단편소설 『혈연』(『연변』, 1962.9.)의 줄거리에 여러 사건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길지 않은 장편소설이다.¹⁹⁾

『다시 찾은 고향』은 『혈연』의 가족상봉이라는 주제에 크게 이상 실현을 위한 열정에 대한 예찬과 문혁의 혼란상에 대한 비판이라는 두 주제가 결합되어 있다.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은 누구나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자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보훈 자녀로 입학원을 졸업한 송림은 송하임업국으로 지원하고, 임업국장 곽림이 영림과에 배치하려 하자 오지 중의 오지인 오림임장으로 가겠다고 우긴다.

“조림학을 배우고 기관에 들어앉아 무얼 하겠습니까. 사무실에다 나무를 심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또 오림은 저의 고향입니다. 전 황폐한 고향산천에다 소나무가 우거지게 하렵니다.”

“오림임장은 금년 봄에 갓 서서 시설이 말이 아닐 텐데.”

곽림은 은근히 흡족해 하면서도 중 떠보듯 한 마디 뚱기쳤다.

“그렇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고 싶습니다. 왜놈들이 짓밟아 놓은 고향을 제 손으로 일으켜 세워 보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피를 뿌린 고향 땅이 여태껏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곽림은 그 대답이 참으로 흐뭇하였다. 포부가 있고 기백이 있는 대학생이었다. 렬사의 후예라고 배려를 돌려 기관에 남기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나오니 곽림으로서도 정말 기뻐다. 학교에서도 그를 주림업국으로 소개를 하였는데 기어이 변화한 도

19) 참고로 『혈연』은 200자 원고지 90매, 『다시 찾은 고향』은 200자 원고지 1300매 정도의 분량이다.

시를 버리고 이런 산간벽지로 찾아온 그가 못내 대견했다.²⁰⁾

일제는 만주국 시절 만주 지역을 철저히 수탈하였다. 만주 지역에서 산출되는 석탄과 철강 등의 광물과 밀과 쌀 등 농산물은 물론이고 만주 지역에 산재한 원시림의 목재 역시 수탈의 좋은 표적이었다. 특히 한반도에서 가까운 백두산 지역의 목재를 남벌하여 압록강을 따라 수탈하였으며, 만주국 시절 수없이 자행된 항일연군의 토벌 과정에서 적들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미명 아래 산림에 대한 방화도 적지 않아 만주 지역의 많은 산림들은 심하게 황폐해졌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만주 지역의 산림에 대한 육성은 중국 당국의 중요한 과제였고, 당의 정책에 따라 많은 작가들은 육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에서 송림이 임학원을 졸업하고 오지인 오림임장으로 자원하는 것은 고향에 돌아가 헐벗은 고향의 산림을 우거지게 하겠다는 소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육림을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다는 청년다운 이상 실현의 열정이기도 하다.

거대한 산림 속에 터를 잡고 있는 임장들은 강인한 채벌부들이 모여 전문적으로 할당된 목재를 채벌하는 곳이다. 그러나 남벌로 산림이 황폐해지는 상황에서 채벌한 곳에 적당히 몇 그루 나무를 심는 것으로는 산림의 황폐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치밀한 계획 하에 지역에 알맞은 경제성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묘목을 육성하고 철저한 계획 아래 꾸준히 육림하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돌보는 노력이 담보될 때 산림의 경제적 순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송림이 주장하는 이러한 육림 계획에 대해 오림임장의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 수공은 하지만 채벌을 위한 노동력도 부족하니 일단 할당량을 채운 후에 시간을 내어 묘목장을 만들고 묘목도 심자고 한다.

20) 『다시 찾은 고향』, 23-24면.

송림의 헌신적인 노력과 설득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묘목장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채벌과 육림의 병행이 가능해져 오림임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 이 과정에서 과로로 몸을 상한 송림이 간호를 해주던 오림임장의 간호사 춘메이와 사랑에 빠져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송하임업국에도 문혁의 혼란이 몰려온다. 타 지역에서 몰려온 조반파들이 오림임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돌아가 그런 대로 안정을 유지하였지만 송하임업국에 업무 차 들렀던 송림은 대학 동기생인 조반파 우두머리 장비 주임의 청탁 반 압력 반에 말려들어 혁명위원회의 일을 보게 된다. 폭력을 일삼는 조반파 무리의 행동이 탐탁하지는 않으나 장주임의 압력에 소극적으로 동조하던 송림은 임업국 주자과의 수괴로 광림을 지명하고 학습반에 데려와 비판 투쟁을 하고, 그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춘메이를 키워준 어머니를 잡아가두어 광림에 대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했다가 혼절하고 만다.

오림에서 어머니 소식을 들은 춘메이와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송림과 함께 감옥에 갔을 때 김금녀는 이미 거의 죽음에 임박해 있다. 이 자리에서 김금녀가 송림의 친모인 것을 확인한 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리자 송림은 울부짖고, 소식을 듣고 감옥에 와서 고향을 지르는 장주임의 떡살을 잡고 절규한다.

“여기가 어딘가구? 왜놈의 감방이지 뭐야! 이 짐승 같은 놈아, 파썸야! 학습반이라는 게 다 뭐야? 혁명위원회라는 건 또 뭐구? 사람 잡이 하자구 계급대오 청리를 하나? 이런 판장판이 어디 있는가 말이야! 이게 무산계급독재냐 아니면 자산계급독재냐? 그래 운동을 이렇게 하랬어, 이게 무슨 놈의 운동이야!...”

송림이는 가슴이 터지는 듯한 분노로 하여 갈범처럼 사납게 웨쳤다. 그의 기상은 험악했다. 눈에서 시퍼런 불길이 펄펄 일었다. 리병술이가 나서서 송림의 손아귀에서 겨우 장비를 빼놓

자 장비는 시뻘쩍게 된 목을 주무르며 발을 굴렀다.
 “송림아, 너 잘 떠별이는구나! 네 놈이 반혁명 절규를 해! 어디 보자!”
 장비는 살기등등해서 방문을 탕 닫고 나가버렸다.²¹⁾

송림의 분노는 다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혁명위원회 일을 보며 그들의 폭력적인 일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이자, 돌아가신 줄 알았던 어머니를 확인하는 순간 어머니가 죽음 앞에서 있다는 절망감이자,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에 대한 절규이기도 하다. 그러나 송림이 장주임에게 퍼붓고 있는 혁명위원회에 대한 비판은 문혁 기간 중 중국 도처에서 발생했던 계급투쟁 과정에서의 폭력에 대한 비판이며 그 시기 중국을 휩쓸었던 좌적 오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송림은 반혁명으로 분류되어 문혁이 끝나는 때까지 8년 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그 사이 어머니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고, 노쇠했던 할아버지는 송림이 일의 충격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긴 시간을 보내고 출옥한 송림은 인간으로서 못할 일들을 한 부끄러움이 가득한 송하임업국으로 되돌아와 이전의 동료들을 만나고, 오림임장에 자원하여 고향 땅을 경제수로 우거질 날을 기대하며 이전의 동료들과 새로운 노동자들과 함께 차별과 욕됨을 계속한다.

『다시 찾은 고향』에서 전경화하고 있는 인물은 열사의 자손이자 대학 졸업자라는 신분의 우위를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이상의 실현을 헌신하는 송림이다. 그의 헌신의 과정 속에 임장 노동자들과의 갈등과 문혁 같은 사회적 혼란에 따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송림의 열정은 이러한 난국들을 뚫고 나간다. 감옥에서 출소하고 고향에 돌아가 사람들을 만나기에 부끄러운 과거의 사건들도 그의 이

21) 『다시 찾은 고향』, 227-228면.

상 실현을 위한 열정을 막지 못한다. 그는 또 다시 오지 오름임장에 돌아와 동료들과 함께 산림을 벌채하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들에게 육림가로서의 전범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송림이 보여주는 바, 개인의 영달을 바라지 않고 고향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러한 이타적인 인물상은 실사구시하는 능력으로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층간부를 예찬하던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작가의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와 인민의 삶의 변화는 간부들의 열정과 헌신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바 없지 않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민들 각자의 각성과 헌신과 이상 실현을 위한 열정이라는 인식이다. 이는 작가 류원무의 현실인식이 초기 단편소설에서 한 걸음 진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상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삶은 그의 문학의 중요한 한 주제가 된다.

4. 엄혹한 현실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분투

『다시 찾은 고향』을 발표하고 2년이 지난 뒤 류원무는 그의 대표작으로 언급되는 『봄물』²²⁾을 출간하였다. 이 작품은 개혁개방 초기 집체영농에서 개인영농으로 바뀌는 시기 60여 호가 사는 수리봉 마을을 배경으로 농촌 개혁의 과정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제재로 하고 있다. 이같이 이 작품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을 당의 정책으로 결정하고 1982년 1월 당의 ‘중

22) 류원무, 『봄물』, 연변인민출판사, 1987. 이 작품은 한국에서도 류원무, 『일어서는 풀 상, 하』(토지, 1988.)와 류원무, 『봄물』(동광출판사, 1989.) 등으로 출간된 바 있다. 이하 작품 인용은 류원무, 『봄물』, 중국조선족문학대계(해방후편) 7(연변인민출판사, 2011.)로 하고 『작품명』, 면수로 표시한다.

양 1호' 문건으로 그 구체적인 농촌개혁의 방향이 제시된 이후 많은 조선족 소설이 지향하던 개혁의 정당성을 그리는 개혁소설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봄물』은 문혁 시기의 좌파적 오류에 따른 집체농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농촌의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개인영농의 효과를 작품의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악랄한 기층간부와 그에 분노하여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정의감 있는 인물 사이의 갈등을 통해 소설적 긴장감 확보하고,²³⁾ 돈 때문에 받는 멸시에서 벗어나 떳떳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봄물』에는 전형적인 악질 기층간부와 자존심 강한 사나이가 갈등한다. 수리봉의 농민이었던 남재운은 계급대오청리가 시작된 사청운동과 문혁 기간 중에 계급투쟁의 맹장으로 나서 공사혁명위원회 주비소가 나오자 주임후보자 명단에 오른 남재운은 계급투쟁에 앞장선다.

60여 호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수리봉 마을에서만 해도 주자파, 특무, 반역자, 지주, 부농, 반혁명분자, 나쁜 분자가 무려 10여명이나 끌려나왔다. 사람 잡이가 잘 될수록 김현준이나 백성호의 '죄악'은 커졌고 그럴수록 재운의 공포부에 찍혀지는 붉은 별은 더 많아졌다.²⁴⁾

문혁 기간 중의 극좌적 정치판에 앞장서서 작은 감투를 얻은 그는 마을 처녀 은실이를 탐내 그녀의 형부인 공사서기 백성호를 주자

23) 이 작품에 대해 선과 악이라는 이원대립의 갈등과 인물성격의 도식화와 단순화를 벗어나지 못하여 갈등 설정이나 인물 창조에서 선행 시기의 소설을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개혁개방이라는 현실생활을 소재로 한 첫 장편소설이라는 데 일정한 의의가 있다는 본고와는 다른 평가를 보이기도 한다. 김호웅 외, 『중국조선족문학통사 하』, 연변인민출판사, 2012, 199면.

24) 『봄물』, 285면.

파로 몰고, 그녀의 아버지를 반혁명분자로 몰아 결혼을 쟁취한 파렴치한 인물이다. 남재운은 공사회계라는 감투를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마을사람을 불행에 빠뜨린다. 축구에 재질이 있는 가난한 리역석을 선수로 추천해 주지 않아 꿈을 접게 하고, 빛 갠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공사의 돈을 대여해 주지 않아 죽게 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아버지가 진 빛이 적지 않고 아버지 간병비까지 필요한 리역석이네는 집안사람이 다 나가 공수를 벌어도 이자도 못 가릴 처지이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식량 분배를 하는 날 남재운은 가난뱅이 주제에 자존심만 강한 리역석을 멸시하는 마음에 빛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쌀은 한 톨도 주지 않고 잡곡만 분배한다. 남재운의 악랄한 행태에 분노한 리역석은 생산대 탈곡장에서 벼마대를 훔쳐 나왔다가 남재운의 고발로 감옥에 가게 된다.

돈이 없는 사람은 최소한의 인간대접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리역석은 무슨 일을 해서든 큰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출옥하여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실천에 옮긴다. 동생들을 이끌고 한겨울에 개울에 들어가 얼음을 깨고 잡아들인 기름개구리를 판 돈으로 종돈과 소를 사고, 이전의 기층간부들이 일구었다 실패하여 황무지가 된 약진논을 개간하여 개인영농의 길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리역석은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 할 만큼 돈을 벌고, 마을사람들 모두 개인영농으로 나아가려 하게 된다. 이미 당의 정책은 개혁개방으로 정해졌지만 집체와 개체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달되는 정책에서도 지상에 발표되는 기사에서도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 남재운은 자신을 앞설지도 모르는 리역석에 대한 증오심에 음모를 꾸며 그를 다시 감옥에 보내버린다. 이는 개혁개방 초기 정책의 혼선 속에서 빚어진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리역석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돈벌이에 나선 인물이다. 사회

주의는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잘 사는 것을 지향하는 이념이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기층간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공사서기 백성호가 비교적 공평무사한 간부라고는 하나 돈을 쥐고 있는 공사회계가 비열한 경우 사회주의 정책의 올바른 실현은 불가능하다. 빛이 많고, 아버지의 노동력이 없고, 가족은 많은 리역석이네는 공사에 진 빛을 갚을 길이 없어 마을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런 리역석이 인간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 바, 개혁개방은 그 좋은 기회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대장을 찾아가 생산대의 농지를 개인영농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버려진 논을 개간해 온 힘을 다해 농사를 짓고, 노동력이 필요해지자 인부를 고용해 소득을 극대화한다. 리역석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사회주의에 위배될 뿐더러 마을사람들의 비판도 크다는 옥실의 지적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옥실이, 나도 귀가 있어 다 듣고 있소. 욕심쟁이다, 뜨개소다, 착취다, 신부농이다, 자본주의다, 무슨 말인들 못 들었겠소. 가을에 몽땅 몰수하지 않는가 두고 보라는 으름장도 놓으면서 - 그러겠으면 그러라지! 설사 내가 지은 농사를 짚 오라기 한 대 남기지 않구 깡그리 몰수해 간대두 이제 와서는 나는 원이 없소. 봄까지만 해도 나는 반발심도 나고 복수심도 나서 그 많은 논을 다 갈아엎었겠소. 이 역석이 어떤 사람인가 한 번 보라구 말이요. 그렇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소.“

역석이는 말을 잠깐 멈추었다가 떨리는 어조로 이었다.

“나는 내가 무슨 욕을 먹든 다 달갑소. 나를 투쟁해서 납작하게 만들자는 사람이 있는 줄도 아오. 가을에 가서 혹 약진논의 벼가 모조리 몰수당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농민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걸 보여준 것으로 하여 나는 마음이 거뜬할 거요. (후략)”²⁵⁾

리역석이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나 시샘에도 불구하고 개인영농으로 나아가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돈을 벌어 남들보다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가난 때문에 마을사람들의 멸시 속에 살아온 자신의 존재를 남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즉 인간존엄에 대한 선언이다. 그리고 이는 농촌 개혁의 주체가 기층간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농민에게 있음에 대한 자기 확신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리역석은 농촌 개혁의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의 지지도 받지 않고 황무지였던 약진논을 개간하여 성공을 거두지만 남재운의 간계에 걸려 공안에게 잡혀간다. 그러나 이 사건은 리역석의 패배이기보다는 그를 가로막는 세력 즉 남재운으로 상징되는 구세력의 실패이다. 리역석이 잡혀가는 순간 광출이, 신용해, 형락이, 백성호 모두 달려나와 분노하고 광출이는 역석이 앞으로 다가가 추수는 남은 사람들이 할 터이니 집 근심은 하지 말라고 고함친다.²⁶⁾ 이는 농민들이 당의 정책보다 먼저 농촌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사람들의 모습은 리역석의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리역석과 남재운의 인물 형상이 잘 그려져 갈등을 분명하게 하고 리역석이 개인영농에 성공하여 농촌 개혁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리역석의 행동은 농촌 개혁의 과정에 꼭 필요한 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과 그것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열정이 그것이다. 개인영농이 개체영농에 비해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다. 농촌은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강렬한 욕망이

25) 『봄물』, 441면.

26) 『봄물』, 609면.

필요하다. 류원무가 제시한 개인이 자신의 온힘을 다하는 욕망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욕망이다. 마을사람들의 멸시를 벗어나려는 리역석의 욕망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농촌 현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점을 소설화한 것이 『봄물』이 가지는 소설사적 의미라 할 것이다.

5. 농촌 개혁 과정에서 전문호 탄생의 의의

『봄물』을 통하여 농촌개혁 과정의 혼란을 소설화한 류원무는 2년 동안의 집필 과정을 거쳐 유능한 기층간부의 방조 아래 전문 기술을 가진 농민이 전문호가 되어 진정한 농촌 개혁을 이루는 과정을 그린 『아리랑 열두 고개』를 탈고한다.²⁷⁾ 서광춘은 마을의 정신적 지도자인 노당원 임봉학의 존재와 생산대장 리달경의 생각에 따라 사회주의 농촌의 전형인 집체영농을 유지하다가 마을 사람들의 주장과 상급의 지도에 따라 다른 마을보다 한 해 늦게 개인영농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개인영농을 실시하면서 다른 마을에서 이미 시행한 것처럼 토지는 물론 가축과 농기구까지 전부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갖는다. 그러나 마을의 한 구석에 자리한 몇 년간 제대로 가꾸지 않아 많이 황폐화된 상당한 넓이의 포도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다가, 포도원을 나누면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니 상납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도맡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딸만 많아 노동력이 부

27) 『류원무 년보』에 따르면 『아리랑 열두 고개』는 1989년 12월에 탈고하고, 1990년 3월 『장백산』지에 발췌·소개되었으나 출판 여건 상 2001년 7월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에서 출간되었으며, 2004년 5월 연변라디오방송국에서 전문 방송되었다. 한국에서도 『아리랑 열두 고개 1, 2』(한국학술정보, 2005.)가 발간되었다. 이하 작품 인용은 한국학술정보 판으로 하고 『작품명』 권수, 면수로 표시한다.

죽해 늘 가난하게 살던 김태운이 상납금을 남보다 많이 내기로 하고 또 포도 농사에 밝다는 이유로 포도원을 도맡게 된다. 이는 먼저 도거리 농사를 시작한 마을들이 인삼장, 버섯장, 양어장, 양돈장, 과수원 등을 모두 조각조각 나누어 도거리를 시킨데 비하면 전문호를 만들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 오전 집집의 세대주들이 참석한 사원대회에서도 포도원 ‘경매’가 멋들어지다 하리만큼 순조로웠다. 무엇보다 포도기술자인 김태운이가 포도원을 도맡은 것이 기뻐다. 비록 김태운이와는 어제 풋면목이나 익힌 정도였지만 그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 포도도 알고 경영관리도 알고 기백도 있고 담력도 있다고 생각되었다. 남들은 상납금을 고작 5천 원을 부르는데 그 곱절 만 원을 부르는 것만 보지!

왕에는 농촌에 이런 인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였다. 체비 놀음을 해서야 유능한 사람이 뛰쳐나올 수 있는가? 왕에는 자기가 경쟁 속에서 인재 하나를 얻어냈다고 자부심을 느끼었다. 서광촌의 도거리 농사는 남들보다 한 해 뒤떨어졌다지만 생산이 전문호의 길로 나아가는 면에서는 남들의 앞장에 섰다고 생각되었다.²⁸⁾

인용문에서 왕예 현장은 농촌 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짚고 있다. 1982년 1월 당의 ‘중앙 1호’ 문건으로 농촌 개혁의 방향이 개인 영농으로 정해지자 많은 농촌에서는 생산대 별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개인별로 나누기 시작했고, 분배 과정에서의 잡음을 없애기 위하여 체비를 뽑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결과 개인 영농이 이루어지자 이전의 집체영농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져 농민의 생활이 다소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전문호를 양성하여 영농을 기업화한다거나 향진기업을 설립할 기초 자금을 형성하는 일이 쉽지

28) 『아리랑 열두 고개』 1권, 130면.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류원무는 농촌 개혁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 중에서 전문호의 필요성과 전문호의 성장 과정 그리고 전문호의 등장에 따른 여러 문제 등을 『아리랑 열두 고개』에서 상세하게 소설화하고 있다.

왕예 현장의 생각대로 조금 늦더라도 소규모로 집체영농 시절 생산대에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개인별로 나누어 가진 도거리 농사를 짓는 것 보다는 어떤 분야의 영농 전문가가 한 분야를 도맡아 영농을 책임지는 것이 생산성이 좋을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전문호가 발전하여 영농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사회주의의 이념에는 다소 벗어날지 모르지만 마을 사람 전체가 영농 기업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왕예는 기술력도 있고 경영관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배포도 있는 김태운 같은 사람을 방조하여 전문호로 양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로 생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김태운은 자신의 포도 재배 기술을 총동원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며 세 딸과 사위의 도움을 받아 한 해 농사에 크게 성공하여 상납금을 제하고도 2만원이 넘는 돈을 남긴다. 김태운의 성공은 마을사람들의 시샘을 받지만 현내에 포도왕으로 전문호 성공 사례로 알려져 연변일보 주은송 기자가 김태운을 취재하여 신문에 소개되자 김태운은 현 단위의 유명인사가 되어 버린다. 포도 농사와 포도 묘목 장사는 일정한 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은송 기자의 의견을 딸 곱단이로부터 전해들은 김태운은 포도주 공장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왕예 현장과 길림성의 간부들의 방조를 받아 은행에서 거금의 융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은행에서 돈을 융자받는 과정에서 김태운은 포도원을 경영하는 전문호 시절에는 겪지 않았던 어려움에 부딪힌다. 이미 자본의 논리에 젖어든 기층간부들과 은행 관리들은 상급에서 내린 서류에도 불구하고 항응과 뇌물이 없으

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다. 왕예 현장이나 성의 관리들의 힘으로 눌러 해결하려던 김태운은 오랜 시절 함께한 기층간부의 말에 따라 관과 은행이 요구하는 바대로 따르기로 한다. 이러한 김태운의 변화는 농촌에서 자신의 노력과 하늘의 도움만으로 성공이 가능했던 전 문호에서 사업을 위하여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우여곡절 끝에 서광촌에서 많은 간부들과 기업인들과 은행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전문호들까지 하객으로 참석한 가운데 포도주 공장 착공식을 성대하게 열기에 이른다. 포도 농사꾼 김태운이 전문호를 거쳐 완전한 기업인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은송은 공식적인 행사가 마무리된 후 곱단이와 포도원을 둘러보며 긴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 곱단이네 집에 온 손님들이 다 곱단이네를 위해서 왔다가 생각하지 말라구. 제일 진심으로 온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왕예 서기일 거야. 곱단이네는 왕예가 부추겨 세운 전형이거든. 곱단이네가 잘 되면 왕예두 잘 될 걸. 이번에 위 서기가 밀리구 그가 그 자리에 앉은 것만 보라구. 물론 왕예가 오로지 그것을 위해 곱단이네를 부추겨 세웠다는 거는 아니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실적을 따내려고 밀구멍에 붙어서 가짜 전형을 만들어낸다는 걸 잊지 말라고. 곱단이두 일부 전문호들이 한 때 명성을 날리다가 꺼꾸러지는 걸 신문에서 보았잖아? 따지고 보면 그게 다 그렇게 일어난 전형들이지. 곱단이네는 절대 이런 전형이 되지 말라구. 포도원을 경영할 때는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포도주 공장을 세우게 된 지금에 와서는 이미 금전과 권력의 경쟁 속에 휘말려 들어갔다는 걸 잊지 말라고. 건국 이래 전국적으로 이름 놓던 전형이 꺼꾸러진 것이 얼마나 많아.”²⁹⁾

29) 『아리랑 열두 고개』 2권, 280면.

사실 김태운이 포도주 공장을 세워 기업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왕예 현장의 방조가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였다. 기층 간부와 꿈을 가진 개인이 서로 도와 전문호가 탄생하고 나아가 기업인으로 성장하게 되며 이러한 전문호 탄생은 기층간부의 업적으로 기록되어 승진의 기회가 된다. 그러나 기층간부가 어떤 혁신적인 정책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현장에서 실현시켜 줄 능력과 이상과 정열을 겸비한 농민을 만나지 못 하면 전문호의 탄생은 불가능한 일이다.

류원무는 『아리랑 열두 고개』에서 현실을 변혁시키는 원동력은 기층간부의 헌신적인 노력만도 아니고, 이상 실현을 위한 열정만도 아니며, 인간다운 삶을 찾아 온몸을 바치는 노력만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작품에서 류원무는 왕예 현장의 방조로 김태운이 전문호를 거쳐 기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농촌 현실을 진정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층간부의 올바른 정책 판단과 전문 능력과 이상을 가진 농민이 혼신의 힘을 다해 현실을 개척해 나아가는 열정이 합쳐져야 한다는 보다 성숙한 현실인식을 드러낸다. 이 작품은 류원무가 오랜 고민과 창작 생활을 통해 도달한 현실인식의 위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6. 결론

류원무는 1980년대에 그의 소설을 대표한 만한 중요한 작품들을 대부분 창작했다. 등단 이후 아내의 부채 때문에 시달리게 되는 때까지 약 십 년 정도 연변작가협회 전직작가로 활동하던 시간이 류원무가 가장 왕성하게 소설을 창작한 시기라 하겠다. 이 시기 류원무는 수많은 소설을 발표하였고 작품의 경향도 다양하였지만 그가 일

관되게 사색하고 창작 과정 중에 매달린 주제는 개혁개방 시기 농촌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농촌 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문제였다. 류원무는 이 시기 소설을 통하여 농촌 개혁을 추진해 나아갈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하였고 여러 소설을 통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등단 초기 류원무는 단편소설들을 통하여 농촌개혁을 주도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층간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층간부들이 당의 정책을 농촌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농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의 첫 장편소설 『다시 찾은 고향』에서는 대학을 마치고 도시에서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산림 육성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산골 오지인 고향으로 내려와 임장에서 육림에 헌신하는 인물을 통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이 진정한 농촌 개혁을 가능하게 하리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어 『봄물』에서는 가난한 환경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한 인물이 개혁개방이 지향하는 바 개인영농을 선택하여 성공하는 과정을 통하여 현실을 변화시키고 성공하겠다는 개인의 욕망과 열정이 농촌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류원무는 농촌 개혁의 주체가 누구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한 결과 기층간부, 개인의 이상, 성공을 위한 열정 등 세 가지로 소설화한 후, 『아리랑 열두 고개』에 이르러 이를 종합한 새로운 현실인식을 드러낸다. 농촌 개혁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의 생산성을 신장시킬 전문호의 탄생이 필요하고, 탄생한 전문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방조하여 영농 기업으로 성장시켜 농민들이 이를 중심으로 공존 번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층간부의 정확한 정책 판단과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과 이상을 가진 농민이 상호 협력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농촌의 개혁이 정책을 지도하는 기층간부나 개혁개방에 정책에 따른 소규모의 개인영농에 의해 이루어질 수는 없고, 대규모의 기업 영농과 농촌에서 감당할 수 있는 향진기업의 탄생으로 농촌 경제가 성장하여야 더 많은 농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개혁개방이 추진해 나아가는 정책에 부합한다 하겠다. 류원무가 『아리랑 열두 고개』에서 보여준 기층간부와 이상과 능력을 겸비한 있는 농민이 주체가 되어 힘을 합쳐 농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은 작가가 십여 년의 소설 창작을 통해 도달한 것으로, 이는 조선족 소설이 1980년대에 도달한 하나의 커다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류원무의 소설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농촌 개혁의 주체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여 류원무 소설이 갖는 여러 의미를 놓친 한계를 지낸다. 류원무는 말년에 쓴 수필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자신의 전반 소설의 주선물이고, 자신의 대표작 대부분이 동일한 주제를 반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³⁰⁾ 좌경 노선이 시정된 후에 문혁 기간 중 계급투쟁에 앞장서 동료들을 비판하고 투쟁한 일을 반성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삶의 화두가 되고 평생의 철리가 되었다³¹⁾는 것이다. 류원무가 문혁 이후부터 소설을 창작하였음에 착안하여 그가 문혁을 거치며 터득한 사람다움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소설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가를 살펴 그 의미를 구명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30) 류원무, 『사람이 되겠습니다』, 『연변문학』 2009.2. 이 글의 말미에 2008년 11월 13일에 탈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1) 위의 글, 132면.

■ 참고문헌 ■

1. 자료

- 류원무 · 허해룡, 『다시 찾은 고향』,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5.
 류원무, 『봄물』, 연변인민출판사, 1987.
 류원무, 『봄물』, 중국조선족문학대계 7, 연변인민출판사, 2011.
 류원무, 『아리랑 열두고개』,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1.
 류원무, 『아리랑 열두 고개 1, 2』, 한국학술정보, 2005.
 류원무, 『단편소설선집』, 한국학술정보, 2005.
 류원무, 『중편소설선집』, 한국학술정보, 2006.
 류원무, 『류원무 단편소설 자선집』, 연변인민출판사, 2008.
 류원무, 『회한』, 연변인민출판사, 2009.
 류원무, 『사람이 되겠습니다』, 『연변문학』 2009.2, 129-132면.
 허해룡, 『혈연』, 『단편소설선』, 중국조선족문학대계 15, 연변인민출판사, 2012, 146-168면.

2. 논저

- 김호응 외, 『중국조선족문학통사 하』, 연변인민출판사, 2012.
 김 혁, 『무정천리 꽃이 피네 - 유정의 “은사” 류원무 선생님』, 『연변문학』 2009.2, 167-174면.
 리상각, 『다정한 류원무 문우를 보내며 그리운 눈물을 뿌린다』, 『연변문학』 2009.2, 133-137면.
 리혜선, 『진지한 인생 진지한 작가』, 고 류원무선생 작품세미나 발표문, 2009.4.28.
 림원춘, 『인격자 - 류원무』, 『연변문학』 2009.2, 138-145면.
 오상순, 『개혁개방과 중국조선족 소설문학』, 월인, 2001.
 오상순 주필, 『중국조선족문학사』, 민족출판사, 2007.
 이광일, 『해방 후 조선족 소설문학 연구』, 경인문화사, 2003.
 차희정, 『개혁개방기 중국 조선족 아동문학에 나타난 조선족 공동체 의식과

- 탈구 - 류원무의 『우리선생님』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52집, 2010, 315-342면.
- 최호남, 「류원무의 장편소설 『봄물』에 대한 문체론적 연구」, 연변대 석사논문, 2015.
- 프랑크 디코터, 고기탁 역, 『해방의 비극』, 열린책들, 2016.
- 프랑크 디코터, 최과일 역, 『마오의 대기근』, 열린책들, 2017.
- 프랑크 디코터, 고기탁 역, 『문화대혁명』, 열린책들, 2017.
- 한명환, 「한민족 농촌소설 탈식민주의적 위상 고찰 - 70년대 한국 농촌소설과 개혁개방기 중국 조선족 농촌소설을 중심으로 -」, 『한중인문학연구』 21집, 2007.8, 51-75면.
- 허룡석, 「작가는 갔으나 덕성은 남아 - 고 류원무 선생을 추모하며」, 『연변문학』 2009.2, 146-166면.
- 「고 류원무선생 추도사」, 연변작가협회 소장 자료.

「Abstract」

The Subject of Rural Reform Appearing in
Ryu, Won-mu's Novels

Choi, Byeong-Woo

Ryu, Won-mu created most of his works in the 1980's when he was a fulltime writer for the Yanbian Writers Association. At this time, Ryu, Won-mu continued to speculate on the reality of rural areas and the right direction of rural reforms during the period of reform and opening, and fictionalized what should be the subject of rural reform.

At the beginning of his literary career, Ryu, Won-mu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ocal cadres devoted to orienting the Party's policies to rural realities and leading farmers' lives better. Ryu, Won-mu, who has continued to worry about the subject of rural reform since then, shows a new perception of reality combined with local cadres, individual ideals and passion for success. For the rural reform, Jeonmunho(전문호), which will enhance the productivity of the rural area, should be managed as an enterprise farming and grow into a township enterprise(향진기업) with which rural areas should coexist and prosper. For this, local cadres are required to cooperate with farmers who have the expertise and idealities to make accurate policy decisions and to perform policies.

Individual farming alone cannot fulfill the rural reform, and it can be successful if it develops into enterprise farming and township



enterprise, which reality is consistent with the direction of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pursu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rural reform is only possible when local cadres with the right policy strive with devout and capable farmers. The reality perception that Ryu, Won-mu's novels showed here can be evaluated as one of the accomplishments reached in the 1980s by Joseonjok's novels.

Key words: reform and opening, reality perception, subject of rural reform, local cadres, Jeonmunho, enterprise farming, township enterprise

투 고 일 : 2017년 10월 14일 심 사 일 : 2017년 10월 20일-11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7년 12월 20일